

# 방언 자료의 수집과 정리

崔明玉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방언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왜 필요한가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전환되면서 농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청년층이 대도시로 빠져나갔고 가족 제도가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바뀌었다. 그 결과 농촌 인구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청소년층과 노년층 간에 단절이 생겼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함께 입시 위주의 교육이 계속되고 전자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는 사이에, 언어 습득과 언어 사용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청소년들은 성인들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국어를 습득하고는, 입시 위주의 공부와 오락게임과 인터넷 사용에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대부분을 보내고,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책은 거의 읽지도 못한 채 청년기를 맞이한다. 그리하여 극히 한정된 어휘를 사용하면서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한다.

그 동안에 노년층 인구는 줄어들었고 그와 함께 오랫동안 전수(傳受)되어 오던 전통적인 국어 어휘의 상당수가 소멸되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지금의 7, 80대 노년층이 타계(他界)하게 되면, 그나마 남아 있는 전통적인 국어

어휘의 대부분이 소멸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10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 기간에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만 이 기간에 그 어떤 분야보다 우선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업은 소멸되어 가는 전국의 주요 방언을 수집하고 정리해 두는 일이다.

정치, 경제, 교육 등에 존재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노력에 따라 천천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멸되어 가는 전국의 주요 방언은 지금 우리가 수집해 두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구상에서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상품이나 귀중품은 지금 구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잘 살게 되면, 현재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라져 가는 방언은, 오늘날 수집해 두지 않는다면, 장차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되살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전통적인 방언의 수집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언에는 우리 선조의 얼이 용해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 거기에는 국어의 역사와 국어에 대한 우리의 언어 능력의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언 자료의 수집과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

## 2.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언 자료의 수집은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현지 조사 전 단계와 현지 조사 단계가 그것이다. 현지 조사 전 단계는 방언 자료 수집을 위한 계획과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방언 자료 수집의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 수집 대상 지역과 조사 일정 및 조사 항목을 정하며 다음으로 읍지(邑誌)나 군지(郡誌), 민속 자료집이나 방언집이나 현지 출신자를 통하여 자료 수집 대상 지역에 대한 예비 정보를 수집한다.

현지 조사 단계는 제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준비된 조사 항목에 대한 방언형이나 그 외의 방언형을 질문을 통하여 수집하는 단계이다. 수집된 방언

자료의 가치가 결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수집된 방언 자료의 가치는 조사자의 질문과 제보자의 의도 그리고 제보자가 하는 대답과 조사자가 듣는 청취의 정확도 그리고 조사자가 한 기록의 정확도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조사자와 제보자의 자격 그리고 조사자와 제보자의 친밀도, 조사 항목과 질문 방법, 방언 자료의 기록 방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 2.1. 조사자와 제보자

**조사자의 자격** : 방언 자료 수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누구나 조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기와 다른 방언의 사용자로부터 그 지역의 전형적인 방언형을 한정된 시간에 얻어낼 수 있는 조사자가 될 수 있으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자격의 요건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제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심리 파악 능력, 조사 항목이나 알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끌어낼 수 있는 질문 능력, 조사 중에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 임기응변 능력, 제보자의 말을 분석할 수 있는 언어학적 지식 등이다.

**제보자의 자격** : 제보자 역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 대상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여 누구나 제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보자의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 지역의 전형적인 방언을 말해 줄 수 있는 순수 토박이일 것, 다른 방언과 접할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는 안정된 직업에 종사할 것, 질문 내용을 빨리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다른 사실까지도 예시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말하기를 좋아할 것, 오랫동안 앉아서 답해 줄 만큼 건강하며 분명히 발음할 수 있을 만큼 발음기관이 양호할 것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 토박이란 그 지역에서 3대 이상 살아온 사람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머니와 할머니도 그 지역의 출신자여야 한다.<sup>1)</sup>

**조사자와 제보자의 친밀도** : 낯선 사람들이 서로 만난다면 처음 얼마 동안

은 어색한 관계가 지속되기 마련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제보자가 전형적인 자기 방언을 말해 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이 표준어나 도시 말에 비하여 품위가 낮고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과 대중 전달 매체 때문에 자기들의 방언에 대한 표준어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제보자는 걱정만 하면 얼마든지 조사 항목에 대해 표준어로 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순수 토박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하여 그것이 그 지역의 전형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조사자는 제보자가 결정되면, 곧 방언 조사를 시작하지 말고 두 사람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친해질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시간에 조사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가능한 한 빨리 제보자를 웃게 할 것(웃음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색하지 않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웃게 되면 상대방과의 어색한 관계가 풀어지기 때문이다.), 제보자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화제를 제시하여 제보자가 상당 시간 말하게 함으로써, 곡용어미나 활용어미 등 조사 지역어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문 단위 이상의 자연어를 녹음할 것, 제보자의 가족사나 경력에 대한 것을 물어서 제보자의 자격을 확인할 것, 방언 조사의 목적이나 필요성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 방법 등을 알려 제보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협력하고 조사 의도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게 할 것 등이다.

## 2.2. 조사 항목과 질문 방법

**조사 항목 :** 조사 항목이란 제보자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해당 방언의 분

- 
- 1) 아버지 쪽이 3대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어머니가 다른 지역의 출신이라면, 그 사람은 제보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어릴 때에 이사 와서 50, 60년 이상을 살고 있으니 그 지역 출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도 제보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아주 어린 시절에는 가족 특히 어머니의 말을 대상으로 말을 배우므로, 다른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어머니나 가족의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류 목록이다. 조사 항목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음운론 연구 중 공시 음운론 연구를 위해서는 음운 목록의 확인을 위한 항목(최소대립쌍)과 곡용형과 활용형의 확인을 위한 항목이 조사 항목을 구성할 것이며, 통시 음운론 연구를 위해서는 통시적 변화가 화석화되어 있는 어휘 항목이 조사 항목을 구성할 것이다. 이 경우에 곡용형의 확인을 위한 조사 항목에는 어간이 자음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와 '주격(-이/가), 대격(-을/를), 처격(-에), 향격(-으로)'이 통합하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하며, 활용형의 확인을 위한 조사 항목에는 어간이 자음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동작동사 및 상태동사) 어간과 '-(고, 지, 더라, 아(도, 서), 으면, 으니까, 으시-)' 등의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한다.<sup>2)</sup>

어휘론 연구를 위해서는 친족과 인체를 비롯하여 천문, 지리, 가옥, 음식, 질병, 기구, 복식 등 자연이나 생활 등의 각 분야별 어휘나 명사, 동사, 부사 등 말의 문법적 성질에 의한 어휘 등이 조사 항목을 구성할 것이다.<sup>3)</sup> 그리고 문법론 연구를 위해서는 격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선어말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와 존비법, 문체법, 부정법과 같은 문법 범주들이 실현된 문(文)들이 조사 항목을 구성할 것이다.

2) 예를 들어, 표준어 '술[鼎]'이 어미 '-(이, 을, 으로, 에)'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은 ① 경기도 파주에서는 [소시], [소술], [소스로], [소세]이며, ② 경기도 고양, 양평, 여주, 시흥, 광주에서는 [소치], [소출], [소츠로], [소테]이다. 그리고 ③ 전라남도 거의 대부분에서는 [소시], [소술], [소스로], [소테]이며, ④ 경상남도의 거의 대부분에서는 [소치], [소틀], [소트로], [소테]이다. 만약 ②와 ③의 지역에서 주격이나 대격이 통합하는 경우만을 조사 항목으로 하여 조사한다면, 처격이 통합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될 것이다.

3) 지금까지 국어학적 관심에서 간행된 방언 자료집은 대부분이 단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 근래에는 표제어에 대한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시된 예문을 모두 소리대로 표기한 것은 없다. 조사 항목 작성에 참고가 될 방언 자료집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金亨奎(1974), 崔鶴根(1978), 金履浹(1981), 金泰均(1986),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7-1995), 濟州大博物館(1995), 金英培(1997), 이기갑 외(1997), 이상규(2000) 등.

특히 준비법, 문체법과 같은 통사론 연구의 경우는 준비법과 문체법을 연결시켜 조사 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서술어에 ‘계사, 자음으로 끝나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모음으로 끝나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포함시켜야 하며 주어와 종결어미와의 호응 관계, 서술어와 종결어미의 통합관계,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와의 통합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동남방언의 경우, “•아부지가 갖심니까<아버지가 갖습니까>? •아재가 갖소<아저씨가 갖습니까>? •자네가 갖능가<자네가 갖는가>? •니가 갖나<네가 갖니>?”에서 보듯이, 주어에 따라 그에 호응하는 종결어미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게 누 집이고<이것이 누구의 집이니>? •이게 너거 집이가<이게 너의 집이니>? •니 오데 가노<너 어디 가니>? •니 집에 가나<너 집에 가니>? •니는 이기이 좋나<너는 이것이 좋니>? •우째서 니는 이기이 좋노<어째서 너는 이것이 좋니>?”에서 보듯이, 서술어가 계사인가 동사(동작 또는 상태)인가에 따라 그 서술어와 통합하는 종결어미가 달라진다. 그 뿐만 아니라 문 속에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결어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아까 소리친 사람이 니였나<아까 소리친 사람이 너였니>? •아까 소리친 사람이 누구였노<아까 소리친 사람이 누구였니>?”에서 보듯이, 서술어는 계사이지만 과거시제 표시 선어말어미가 통합하면 그 뒤에는 종결어미 ‘-가나’ ‘-고’가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나’나 ‘-노’가 통합한다.

**질문 방법** : 조사자가 미리 정한 조사 항목에 대한 방언형을 제보자가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함으로써 방언 자료의 수집은 시작된다.4) 질문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조사 항목에 대한 방언형을 제보자가 먼저 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조사자는 제보자가 답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만 해야지 제보자가 답하기 전에 조사 항목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4) 질문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은 조사자와 제보자의 위치이다. 방언형을 기록할 수 있는 작은 상이 있다면, 조사자와 제보자는 마주 보고 앉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제보자의 입술 모양을 보고 원순모음화를 보이는지 ‘외’나 ‘위’가 단모음인지 이중모음인지를 쉽게 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것이다. 그러므로 제보자는 “과리[蠅]를 여기서는 무어라고 합니까?”, “혹시 ‘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리’라고 합니까 ‘과리’라고 합니까?”, “포리’라고 하지요?” 등과 같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방언 자료를 조사할 때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질문 방법으로는 ① 명명법(命名法), ② 완성법(完成法), ③ 열거법(列擧法), ④ 대치법(代置法), ⑤ 역질문법(逆質問法), ⑥ 제시법(提示法) 또는 암시법(暗示法)이 있다. 이 중에서 ①~③은 제보자의 대답 형식을 기준으로 붙인 명칭이고 ④~⑥은 조사자의 질문 형식을 기준으로 붙인 명칭이다. 이들 질문 방법의 구체적인 예와 적용의 경우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명명법(命名法) : 직접 대상물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저것을 무엇이라 합니까?”와 같이 묻는 질문 방법이다. 이 질문 방법은 현장에 있는 조사 항목에 대한 방언형을 알고자 할 때에 적합하다.

② 완성법(完成法) :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을 무어라고 합니까?(표준어 ‘소경’에 대한 방언형을 물을 때)”,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를 부를 때에 무어라고 합니까?(표준어 ‘할아버지’에 대한 방언형을 물을 때)”, “며느리가 시 아버지를 부를 때에 무어라고 합니까?(표준어 ‘아버님’에 대한 방언형을 물을 때)”와 같이 묻는 질문 방법이다.<sup>5)</sup>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제보자가 답하게 한다는 것이 이 질문 방법의 핵심이며, 이 질문 방법은 현장에 없는 조사 항목에 대한 방언형을 알고자 할 때에 적합하다.

③ 열거법(列擧法) : “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된장은 어떤 순서를 거쳐서 만들어집니까?”, “봄에는 밭에 어떤 채소들을 심습니까?”와 같이 묻는 질문 방법이다. 한 번의 질문으로써 여러 가지를 알고자 할 때에, 이 질문 방법이 적합하다.

5) 이 경우에 ‘게[蟹]나 ‘가오리[魷魚]와 같이 설명하기 어려운 대상물들은 그에 대한 그림을 준비하여 내어 놓고 그것을 가리키면서, ‘명명법’으로 질문하면 답을 쉽게 끌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도 절약될 것이다.

④ **대치법**(代置法) : “애가 지금 물을 ( )은/는다, 애야 빨리 물을 ( )아라, 애야 그 물은 절대로 ( )지 마라, 애가 물을 ( )고 있다, 애가 물을 다 ( )었다. (‘마시-[飲]’의 활용을 조사할 때)”와 같이 묻는 질문 방법이다. ‘밑줄 친 부분’의 방언형을 제보자가 말하도록 함으로써 곡용이나 활용과 같은 어형 변화를 알고자 할 때에 적합한 질문 방법이다.

⑤ **역질문법**(逆質問法) : “아뻐(표준어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은 누가 누구를 부르는 말입니까?”, “새뻐이(작은 민물 새우)와 ‘징게미(검고 큰 민물 새우)’는 어떻게 다릅니까?”, “짚지(젓으로 담은 물 없는 김치)는 무엇을 말합니까?”와 같이 묻는 질문 방법이다. 이것은 특별한 방언형을 조사자가 말하여 그 의미나 용도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 적합한 질문 방법이다.

⑥ **제시법**(提示法) 또는 **암시법**(暗示法) : “이[飗]의 ‘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혹시 ‘서캐, 썰가래, 썰가리, 헤: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자 또는 ‘제마꿈’에 해당하는 이곳 말은 ‘지주굼 지주굼, 지주움 지주움, 시시마꿈, 시제마꿈’ 중 어떤 것입니까?”와 같이 묻는 질문 방법이다. ①~⑤의 질문 방법을 사용하여도 물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에, 몇 가지 가능한 방언형을 제시하여 제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거나 제시되지 않은 방언형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 방법이다.

### 2.3. 방언 자료의 기록 방법

좋은 제보자를 구하고, 그 제보자를 상대로 적합한 질문을 하여, 조사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언형을 얻어내는 것으로써 방언 자료 조사는 일단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의 성공도, 조사자가 제보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sup>6)</sup> 조사자가 범하게 될 이러

6) 방언 자료의 ‘기록’에 대한 언어학적인 술어는 ‘전사(轉寫, transcription)’이다. 전사는 국제음성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글 자모와 보충 기호를 사

한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자는 조사 기간 동안 자신이 ‘화성(火星)’에서 온 사람이라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조사자는 제보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면, 조사자의 선입관 때문에 제보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심하거나 잘못 듣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활용 조사를 하는데, 제보자가 표준어 동사 ‘묶-[束], 삶-[烹], 찡-[搗]과 어미 ‘-{고, 더라, 어도, 어라}’가 통합할 때의 방언형을 ① [몽꼬, 몽떠라, 몽꺼도, 몽꺼라], ② [상꼬, 삼떠라, 삼마도, 삼마라], ③ [짱꼬, 짱티라, 찌어도(č’inədo), 찌어라(č’inəra)]로 대답했다고 하자. 이들 방언형을 분석하면, 동사 ①-③의 어간은 각각 ‘몽ㅌ-’, ‘삼ㅌ-’, ‘짱ㅎ-’이 된다. 이들 동사는 ‘ㅌㅌ, ㅌㅌ, ㅎ’과 같은 어간말 자음군을 가진다. 조사자가 표준어나 중부방언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어, 이러한 어간말 자음군의 존재를 의심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어 사실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그러한 자료에 의한 연구 결과 또한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방언 자료를 기록할 때에 유의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보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소리나는 대로 기록한다. 예를 들면, 이것은 표준어 ‘젓-[澗]과 어미 ‘-{고, 는다, 더라, 어도}’가 통합할 때의 방언형을 ‘적꼬, 전는다, 전떠라, 저저도’와 같이 기록한다는 말이다. 수집된 방언 자료는 수집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방언에 관심을 가지는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될 모든 사람의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 자료를 표준어의 표기법대로 기록한다거나 음성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은 표준어의 표기법대로 기록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소리대로 기록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음성

---

용하여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글 자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해당 지역어의 음운 목록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록된 자료에 사용된 ‘에’와 ‘애’, ‘으’와 ‘어’의 변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외’와 ‘위’가 단모음인가 이중모음인가 등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형의 예측은 국어에 대한 음운론적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방언 자료는 소리대로 기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간행된 그리고 앞으로 간행될 몇 가지 방언 기록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7)</sup>

① 큰아부지<큰아버지>는 기운이 시고<세고> 농사일얼<을> 잘하시고 음악은 일 없고<잘 못하고 또는 서툴고>. 큰엄매<큰어머니>는 강썸데 조강지처가 아녀라<아닙니다>.<sup>8)</sup> 《뿌리깊은나무(1992: 21)》

② 그런 걸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다:: 때려 부시구 공원을 맨들어놔어. 그러구 인제 사:직동에서 영천으루 올라가는 터:널을 맨들었지 않아요? 그 길 맨드느라구 다:: 때려 부셔서 그렇게 해 놔어요.<sup>9)</sup> 《국립국어연구원(1997: 153)》

③ 가실 '게는 딸'로 '내'애нок, 보'메는 메'늘로 내'애논는다<가을에는 딸을 내어놓고, 봄에는 며느리를 내어놓는다>. 가실 '콩'주근 앵무'거도<무'가도>, 봉'콩'주근 잘 멩는'다<가을 콩죽은 안 먹어도, 봄 콩죽은 잘 먹는다>. 《김주석·최명옥 편저(2001)》

2. 한 단어에 대한 방언형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들을 모두 기록하고 부등호(>)로써 사용 빈도를 표시한다. 그리고 고행(古形)인가 신형(新形)인가, 노년층이 사용하는 것인가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것인가 등을 구별하여 표시한다.

예. 표준어 '아궁이'의 방언형 : 부직'(&#x27e8;&#x27e9) < 부석(&#x27e8;&#x27e9)

3. 단어의 의미나 용법에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단어의 오른편 어

7) ①~②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리대로 기록하되 음성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은 표준어의 표기법대로 기록한 자료이며, ③은 모두 소리대로 기록한 자료이다.

8) ( ) 안의 것은 앞 부분의 방언에 해당하는 표준어로서, 필자가 보충한 것임.

9) :는 장음을, ::은 :보다 더 긴 장음을 나타낸다.

깨에 <sup>1</sup>, <sup>2</sup>, <sup>3</sup> 등으로 표시하고 아래 위의 빈칸에 설명을 기록한다.

예. 덕석<sup>1</sup>, 뗏방석<sup>2</sup> : 1. 네모난 것, 2. 둥근 것.

4. 부득이하게 제보자를 바꿀 경우에는 제보자 사항을 기록하고(글자의 색을 달리할 것), 조사 내용을 명백히 구별한다. 왜냐하면 제보자에 따른 방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 각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나 자료를 구별해 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것이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경우에 한 자료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방언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거나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예. 1-35까지(제보자 A), 36 이후(제보자 B). 제보자 A : 강원도에서 군 복무함(육군). 공무원 경력 8년. 제보자 B : 경상남도에서 군 복무함(해군). 군 복무 기간 이외에는 농업에 종사함.

5. 음장 방언인 경우에는 반드시 음장을 표시하고(예. 1의 ②), 성조 방언인 경우에는 성조 표시를 한다.(예. 1의 ③)

### 3.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음운론 연구를 위한 자료인 경우, 공시 음운론 연구를 위해서는 음운 목록 확인을 위한 것, 음운 과정과 음운 규칙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정리한다. 음운 과정을 밝히기 위한 것은 어간말의 음운 환경에 따라 정리한다. 즉 먼저 ㉠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으로 나누고, ㉠은 다시 어간말의 자음별로, ㉡은 어간말의 모음별로 나누어 어미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을 정리한다. 그 다음에 정리된 음성형을 형태음소의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분류한다.

어휘론 연구를 위한 것은 친족과 인체를 비롯하여 천문, 지리, 가옥, 음식, 질병, 기구, 복식 등 자연이나 생활 등의 각 분야별 어휘나 명사, 동사,

형용사 등 말의 문법적 성질에 의한 어휘 등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문법론 연구를 위한 것은 격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선어말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별로 구별하여, 그들 어미가 사용된 예를 문(文)의 단위로 정리한다. 또 준비법, 문체법, 부정법 등은 각각을 구별하여 그에 해당하는 최대로 다양한 예를 문의 단위로 정리하되, 준비법과 문체법은 준비 등분에 따른 문체법과 같이 그 둘을 관련시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이야기나 담화(談話)와 같은 자연 발화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문(文) 단위로 구별하되, 단어나 구, 절 등이 방언 특유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해당 부분 뒤의 〈 〉 속에 그에 대한 표준어 단어나 구, 절 등을 넣어 정리한다.<sup>10)</sup>

#### 4.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방언 자료 수집의 필요성과 절차와 방법 그리고 수집된 방언 자료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논의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우리의 전통적인 방언은 거의 대부분이 소멸될 단계에 있으므로, 소멸 전에 그것을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집하고 정리해야 할 방언 자료는, 음운, 어휘, 문법 등과 같이 분야가 구분될 경우에는, 분야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분야의 구분이 없을 경우에는 이야기나 담화와 같은 자연발화가 될 것이다. 그 어느 쪽에 해당하는 방언 자료라도 좋다. 그리고 조사자는 국어학의 전공자가 아니라

10) 이들 기록 자료는 음성 자료와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다. 종래에 음성 자료는 카세트 테이프뿐만 아니라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카세트 테이프에 보존된 음성 자료는 테이프의 관리를 잘 못하거나 시간이 오래되면 음질이 변하여 자료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음성 자료를 웨이브(wave) 파일이나 MP3 파일, 리얼 오디오(real audio) 파일 등으로 바꾼 다음 CD에 보존하는 것이다.

도 좋다. 중요한 것은 좋은 제보자(2.1 참조)로부터 해당 지역의 전형적인 방언을 소리나는 대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이 일은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이 담당해야 할 것이지만, 특히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수집·정리된 방언 자료는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고 공개할 수 있되, 반드시 국립국어연구원으로 보내어 전국의 방언 자료가 그곳에 보존되어 모든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1997).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1).  
 金英培(1997). 『平安方言研究』(資料篇). 서울: 太學社.  
 金履浹(1981). 『平安方言辭典』. 경기,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김주석·최명옥 편저(2001). 『경주 속담·말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金泰均(1986). 『咸北方言辭典』. 京畿大出版部.  
 金亨奎(1974). 『韓國方言研究』. 서울大出版部.  
 뿌리깊은나무(1992). 「에이 짠한 사람!」. 『내가 나보고 그라요』(민중자서전 20).  
 이기갑 외(1997). 『전남방언사전』. 전라남도.  
 이상규(2000). 『경북방언사전』. 서울: 태학사.  
 濟州大博物館(1995). 『濟州語辭典』. 제주도.  
 崔明玉(1980). 『慶北東海岸方言研究』(民族文化叢書 4). 嶺南大出版部.  
 崔鶴根(1978). 『韓國方言辭典』. 서울: 玄文社.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79). 『方言』 1.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7-1995). 『韓國方言資料集』 I ~ IX.  
 Hymes. Dell (ed)(1964).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Harper and Row.  
 Orton. H.(1960). "An English Dialect Survey: Linguistic Atlas English". *Orbis* 9.